

희토류 세미나 2월14일 개최

한국해양연구원은 2월1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호텔(중구 충무로)에서 <희토류 자원, 그리고 바다>를 주제로 희토류 자원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희토류는 주기율표 제3족인 스칸듐·이트륨 및 원자번호 57에서 71인 란타넘계열의 15원소를 합친 17원소를 총칭하는 말로 희귀 광물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광학렌즈, 전기자동차 배터리, LCD (Liquid Crystal Display) 액정, 풍력발전, 핵자기 공명장치(MRI) 등의 첨단산업 소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일본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이 일본수출을 중단하는 등 자원 무기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희토류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선진국들은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광상 확보, 생산 증대 및 수입체계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자원 수출쿼터제로, 미국은 희토류 광산 채굴로, 일본은 심해저광물자원 확보 전략으로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한 정책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희토류 세미나는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과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며,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해양연구원, 포스코 등 산·학·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희토류 금속 산업용도 및 미래 활용 전망 ▲희토류 금속의 수급동향 및 전망 ▲희토류 금속의 추출방법 및 제련 처리공정 ▲육상광상의 희토류 부존상황 및 개발 현황 ▲심해저광물자원의 희토류 부존현황 및 개발 가능성 순으로 이루어진다.

<화학저널 2011/02/11>